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루키아 순교자

루가 제10주일

성모님의 모친 안나 잉태,
안나(사무엘 예언자의 모친)

제3조, 조과복음 6

성 요한 크리소스토스 성찬예배에서

- 제3조 부활 찬양송 / 82, A 213
- 주일 입당송 '모두 가까이 와서' / 14, A 42
- 성모 입당 축일 찬양송 / 204, B 236
- 예언자 찬양송 / 84, B 262
- 성당 찬양송
- 성탄 대림절 시기송 / 208, B 253
- 사도경 : 갈라디아 4, 22-27 / 봉독서 580
- 복음경 : 루가 13, 10-17 / 129, B 77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루키아 순교자

용기 있는 여성의 상징인 성녀 루키아를 우리 교회는 12월 13일 축일로 기념합니다. 그녀를 체포하여 고문하라고 명령한 그 지역 통치자와 루키아 순교자의 대화는 성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한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느님께 복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사도행전 5:2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녀 루키아는 각종 고문을 가하며 우상에 게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통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왕의 법을 따르고 나는 나의 왕이신 하느님의 법을 따릅니다. 당신은 당신의 왕을 두려워하지만 나는 나의 왕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젊은 여성이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 속 깊이 믿음의 힘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아 순교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이 행동은 큰 공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사도 행전 20,35)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며, 사도 바울로는 이 말씀을 에페소 원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남에게 무언가를 주는 사람은 행복하며, 받을 때보다는 줄 때가 더 행복하다는 의미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이 최우선적인 이 시대의 사람들을 설득하기에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이 말씀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주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지만 우리는 이웃을 자신의 일부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웃에 대해 무관심하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매달리면서 옆 사람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습니다.

둘째, 남에게 주는 만큼 내 몫이 줄어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가 땅에 뿌린 씨는 마치 사라져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씨에서 싹이 트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한 자선이나 봉사는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한 열매를 맺어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셋째, 공치사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을 해주어도 상대방에게 고맙다는 소리를 듣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이 고맙다는 소리를 하든 말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마태오 5,45) 하느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믿음이 깊은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하신 이유는 주는 사람은 하느님과 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신을 무조건 내주는 것, 자신을 조건 없이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 은총과 선물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주시기만 할 뿐, 아무것도 우리에게 되돌려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본받아 이웃에게 작은 선행을 하면 가늠할 수 없는 은총과 사랑과 자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루가 6,38)라는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남을 쉽사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한 의사가 긴급히 한 아이의 수술을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 들어왔다. 그는 얼은 옷을 갈아입고서 수술실로 향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던 아이의 아버지가 의사를 향해 소리쳤다. “왜 이리 늦었습니까? 내 아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르시나요? 의사로서 책임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나 의사는 침착하게 웃음을 머금고 대답하였다. “미안합니다. 밖에 있다가 최대한 빨리 달려온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으니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요? 지금 놀리는 겁니까? 만일 당신 아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이의 아버지는 짜증스런 투로 말하였다.

의사는 다시 차분하게, “성경에서 욥은 흠에서 온 몸 흠으로 돌아가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의사라고 생명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터이니 아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수술은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 밤늦게서야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는 기다리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아드님은 건강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는 옷을 갈아입고 병원 문을 나섰다.

“왜 저리 거만합니까?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줄 시간이 없나요?” 아버지가 간호사에게 물어보았다.

간호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하였다. “지난 밤에 그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전화했을 때, 그는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어요. 이제 닥의 아드님을 살렸으니 다시 자기 아들 무덤 곁으로 가서 영원한 작별의 인사를 하려는 것이겠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기는 쉽고, 그런 생각이나 행동을 자제하기 어렵다. 다른 이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녀)가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우린 결코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도,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마태오 7,1)라고 말씀하셨다.

▶ 아타나시아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님의 축일을 축하합니다

오는 12월 11일 축일을 맞이하시는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님께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항상 건강하시어, 주님의 양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소 식



대교구

■감사합니다

지난 주 12월 3~8일까지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님의 한국 방문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세계총대주교님의 방한을 위해 준비해주시고, 수고해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계총대주교님의 자세한 방한 내용은 다음 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예식

· 12월 12일(수) 성 스피리돈 주교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